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N Business: 미 소비자 지출 크게 떨어지지 않을 듯
- WSJ: 파월 연준의장,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 유지 밝혀
- WSJ: 미국인들 주택 보험 가입 하지 않으려 한다

[미국 금융]

- WSJ: 연준 반 인플레이션 정책과 중국의 침체가 이머징 시장에 타격
- WSJ: 세계 중앙은행들, 금리 충분히 인상했는지 확신 못하는 이유

[뉴저지]

- Money Geek: 뉴저지주 운전자에게 최악의 주로 선정돼

[에너지]

- WSJ: 미국인 휘발유 가격 상승 타격 받아

[미중 관계]

- WSJ: 미 연방상무장관, “미국 경제 이익보험 차원서 중국 방문”
- Bloomberg: 중국 경기 둔화, 글로벌로 영향 미치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미국 회사들 해고↓, 일자리 재배치↑
- Bloomberg: 아이폰 공급망 다변화... 미중 긴장 탓
- Bloomberg: Google “지금 이 순간 휴가 항공권 예약하기 좋은 시기”
- Bloomberg: 스트리밍 제공 프로그램 수, 2년간 39%↑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CNN Business: US consumer spending is expected to cool further but not fall off a cliff

미 소비자 지출 크게 떨어지지 않을 듯

- 올 여름 건조한 소비자 지출과 금융 시장의 회복력 이후에 미국 경제는 수개월간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연준이 계속 금리와 싸우는 중이다.
- 이코노미스트들과 투자자들은 미 경제의 동력인 소비자 지출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은 올해 큰 매도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그렇다고 곧바로 수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Bernstein Private Wealth의 선임 투자 전략가인 Matthew Palazzolo는 “올해 나머지 기간에 노동 시장은 둔화될 것이며 크레딧 카드 부채와 연체가 증가되어 소비자 지출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심각한 경제 침체가 아닌 경제의 둔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CNN Business 기사

WSJ 칼럼: Jerome Powell Stays On His Anti-Inflation Course 파월 연준의장, 인플레 대응 정책 유지 밝혀

- 연준의 파월 의장은 지난 금요일 잭슨 홀 연례 회의의 기조 연설을 통해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즉, 그는 “설사 인플레가 정점에서 둔화되기는 해도 여전히 높다”며 중앙은행은 인플레가 확실히 진정된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제약적인 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마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아 투자자들은 실망한 것이다. 정치인들도 모기지 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불안감을 스며들고 있다.
- 반면에서 40년만에 최고치의 물가 상승과 2년간의 실질 임금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 가구들은 파월의 반 인플레 기조 유지 입장에 환경을 보이는 것 같다.

WSJ 기사

WSJ: Americans Are Bailing on Their Home Insurance 미국인들 주택 보험 가입 하지 않으려 한다

- 미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다. 재난 가능성이 보험료를 납부할 정도로 높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중에 일부는 더 이상 늘어나는 보험료를 감당하기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관련 조사인 Bankrate에 따르면 25만 달러에 근거한 주택 평균 보험료는 올해 연간 1천4백28달러로 2022년에 비해 20%가 증가했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위험은 크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화재로 집이 소실되면 집안과 집안의 물건 뿐만아니라 집의 잔해를 치우는데 드는 비용과 특히 재건축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재건축이나 구입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된다.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Fed's Inflation Fight, China's Slowdown Hammer Emerging Markets 연준 반 인플레 정책과 중국의 침체가 이머징 시장에 타격

- 인상되는 미 금리와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이머징 마켓에 두배의 타격을 주고 있다.
- 당초 투자자들은 브라질에서 타일랜드에 이르기까지 신흥 시장의 경제가 올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이유는 미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그리고 중국 수요의 반등을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로 미 인플레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또한 중국의 회복 약화로 인해 실망한 투자자들은 이제 개발도상국 곳곳에

서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 양적완화 축소가 올해 글로벌 경제에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고 투자자들은 미 고금리 정책의 지속적인 유지를 예상함에 따라 이달 미 국채 수익률은 거의 16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WSJ 기사

WSJ: Why Central Bankers Are Unsure Whether They've Raised Rates Enough

세계 중앙은행들, 금리 충분히 인상했는지 확신 못하는 이유

- 글로벌 차원에서 중앙은행들 총재들은 인플레이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둔화세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이러한 불안은 지난 주말 잭슨홀 연례 회의에서 금리가 정점에 달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낙관론이 아닌 불안한 입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 특히 클리블랜드 연방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가 2년 만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 경제를 불가피하게 힘든 침체로 몰아넣기 보다는 금리를 너무 적게 올려 높은 인플레이를 허용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뉴저지]

Money Geek: Best and Worst States to Drive In 뉴저지주 운전자에게 최악의 주로 선정돼

- 뉴저지주는 도로의 질이 다른 주들에 비해 두번째로 낮고, 혼잡도는 가장 높은, 운전하기 가장 나쁜 주로 선정됐다.
- 이같은 분석은 Moneygeek이 연방고속도로국, 인구 조사국 등 데이터를 5개 부문에서 분석한 것에 따른 것이다.
- 캘리포니아는 운전자 입장에서 두번째로 양좋은 주로 선정됐는데 휘발유 가격은 5달러에 가장 근접하고 연간 차량 유지 관리비는 4백16불, 통행료는 연간 4백99달러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비용, 혼잡도, 안전도, 인프라스트럭처 수준, 날씨 등을 종합해 운전자들에 가장 좋거나 가장 높은 10개주를 각각 선정했다.

Money Geek 기사

[에너지]

WSJ: Rising Gasoline Prices Hit Inflation-Weary Americans 미국인 휘발유 가격 상승 타격 받아

- 휘발유 가격이 최근 몇 주 동안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 에너지 데이터 제공업체인 OPIS에 따르면 일반 휘발유 1갤런은 약 3.82불로 연초보다 약 60센트 상승했다. 디젤은 1월 초에 비해 31센트 하락했지만, 전 달 대비 40센트 이상 상승했다.
- 휘발유 가격 상승은 이미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 하거나 추가 인력 채용을 피하고, 고객에게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
- Springfield의 이삿짐 센터인 Moving Company는 지난 몇 달 동안 운전 기사 3명을 해고했다. 또한 마일리지 요금을 4불 인상했는데, 3불을 추가로 더 인상할 수 있다고 관계자가 말했다. 금액 인상으로 고객 수가 줄어 들었다.

WSJ 기사

[미중 관계]

WSJ: Gina Raimondo Says China Visit Aimed at Protecting U.S. Economic Interests 미 연방상무장관, “미국 경제 이익보함 차원에서 중국 방문”

- Gina Raimondo 장관은 최근 4일간의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동시에 기술 제한과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확고한 대응 입장에서 있다”고 밝혔다.
- 중국에 있는 그녀는 “중국 파트너들과 경제와 상업적인 관계를 논의하면서 우리는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한 국가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번 양국 논의에는 중국이 반대하는 이른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이전 제한과 최근 수개월동안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하게 사용해온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WSJ 기사

Bloomberg: China's Worsening Economic Slowdown Is Rippling Across the Globe 중국 경기 둔화, 글로벌로 영향 미치다

- 중국 경제가 최근 몇 달 동안 급격히 둔화 되었고, 그 영향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미쳤다.
- 정책 입안자들은 건설 자재에서 전자 제품에 이르기까지 자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

-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중국 증시에서 100억 불 이상을 회수했다.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중국 주식 목표치를 낮췄으며, 파급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 아시아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자동차와 칩 구매를 줄인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 지난주 한국과 태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이유를 중국의 미약한 회복세로 꼽았다.
- 하지만 모든 것이 암울한 것은 아니다. 중국 경기 둔화는 국제 유가를 하락시킬 것이고,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글로벌로 배송되는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인플레이와 싸우고 있는 미국과 영국 같은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You've Heard of Quiet Quitting. Now Companies Are Quiet Cutting. 미국 회사들 해고↓, 일자리 재배치↑

- Adidas, Adobe, IBM, Salesforce 등의 기업이 직원을 재배치 했다. 금융 리서치 플랫폼인 AlphaSense에 따르면 8~9월 기업 실적 발표에서 재배치와 관련된 용어 언급이 3배 이상 증가했다.
- 인사 담당 임원들은 직원을 새로운 직무로 재배치 하는 것이 인재 채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미래 계획에 필수적인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6월에 비해 7월에 일자리 감축을 42% 줄였다. 7월 일자리 감축도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올해 들어 월별 일자리 감축이 2022년보다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SJ 기사

Bloomberg: Apple's iPhone Supply Chain Splinters Under US-China Tensions

아이폰 공급망 다변화... 미중 긴장 탓

- 매년 애플은 아이폰, 맥북 등 기타 기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할 주요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2022년에는 188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 중국은 오랫동안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였다. 애플의 제조 파트너 중 약 80%가 중국에 진출해 있었던 것.
- 하지만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새로운 생산 공장이 애플의 기기 제조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는 여러 곳에서 받은 부품을 조립한 후, 고객에게 배송하는 방식이다.

-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공급업체로 꼽히는 국가는 인도와 베트남이다. 두 국가 모두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동시에 저렴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핵심 공급업체이다. 새로운 중국 제조업체들이 공급망에 합류하면서 중국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2012년 이후 중국 내 애플 파트너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ogle Says This Is the Best Time to Book Cheap Holiday Flights

Google “지금 이 순간 휴가 항공권 예약하기 좋은 시기”

- 8월 28일 구글의 예약 트렌드 분석 기능에 따르면 올해 크리스마스 휴가 국내선 항공권은 출발 71일 전에 가장 낮은 요금으로 책정될 것이다.
- 예를 들어 12월 21일에 여행하려면 10월 7일까지 항공편을 구매해야 하는 것.
- 이는 작년 12월의 조언과 달라진 것이다. 작년 조언은 ‘출발 22일 전까지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예약할 수 있다’였다.
- 국내 추수감사절 휴가의 경우, 구글은 예약 트렌드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한다. 출발 36~74일 전에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올해 11월 23일인 연방 공휴일인 추수감사절의 가장 저렴한 항공편은 52일 전인 10월 2일 전후
- 물론 항공 여행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성수기 직후나 이후에 예약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과 여행 비용 상승도 고려해야 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Movies, TV Shows Available on Streaming Jumped 39% in Two Years

스트리밍 제공 프로그램 수, 2년간 39%↑

- 시장조사업체 Nielsen에 따르면 스트리밍 플랫폼이 제공하는 영화 및 TV 프로그램 수가 지난 2년간 39% 증가했다. 이는 약 235만 개. 기존 방송 및 케이블 채널까지 더하면 270만 개다.
- 2년 전 118개였던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는 167개로 늘어났다. 그중에 포함된 회사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시청할 콘텐츠를 찾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2019년 7분 남짓에서 올해 10분 이상으로 늘어났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파월 "금리 추가인상 준비돼 있어...인플레 목표 2% 유지"**

잭슨홀 연설 "인플레 여전히 높아...성장세·노동시장 과열 완화 필요"
"정책환경 불확실성 높아" 어려움 토로...작년과 달리 시장 반응은 잠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금리인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개막 연설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적인 수준에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